



박경희 교수 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 후고 볼프의 피리케 가곡 연구

- Das verlassene Mägdelein, In der Frühe,  
Gebet, Lebe wohl 4곡을 중심으로 -

2004년

100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대학 성악전공

황 지 영

# 후고 볼프의 피리케 가곡 연구

- Das verlassene Mägdelein, In der Frühe,  
Gebet, Lebe wohl 4곡을 중심으로 -

박 경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대학 성악전공  
황 지 영

# 인 준 서

황지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박 경 신 

심사위원 박 경 희 

심사위원 구 분 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독일 리트의 위대한 작곡가 후고 볼프(Hugo Wolf:1860-1903)는 슈베르트와 슈만에 이어 독일 가곡의 계보를 잇는 낭만가곡의 절정을 이룩한 작곡가로 250여 곡에 달하는 가곡을 작곡하였다.

그는 열렬한 바그네리안으로서, 가곡(Lied)에서 시와 음악의 융합을 추구하며 문학적으로 음악에 접근해 나갔다. 그는 바그너의 종합예술(Gesamtkunstwerk)의 이상을 가곡안에서 실현하려 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가곡에서 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가사의 역할을 새로이 인식시켜 주었다.

그의 가곡은 1888년부터 1891년의 짧은 기간동안 집중작곡되었으며 「Mörike Liederbuch」, 「Goethe Liederbuch」, 「Eichendorff Liederbuch」 등 시인별 작곡에 열중하였다.

볼프의 가곡은 독일의 뛰어난 서정시인 뢰리케(Eduard Mörike: 1804-1875)의 시에 곡을 붙이면서 그 진가를 더욱 발휘하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Mörike Liederbuch」 중 'Das verlassene Mägdelein', 'In der Frühe', 'Gebet', 'Lebe wohl' 4곡을 선택하여 볼프가곡 특징이 곡 가운데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고찰하였다.

우선 그는 가곡을 시와 음악의 종합체로 보았다. 그러므로 시의 형식에 충실하여 시의 연과 행이 음악의 형식적 틀을 형성하였고, 시의 리듬과 운율이 박자와 선율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는 조성으로 시의 분위기를 표현하려 하였다. 먼저 조성적 언어를 사용한 예를 살펴보면 a minor는 슬픔과 절망을, d minor는 분노와 불만을 표현할 때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점점 밝아오는 빛을 3도의 조성적 변화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빈번한 반음계 사용, 하나의 모티브로 일관하여 나타나는 반주부 그리고 성악선율의 불완전 종지등 화성으로도 시의 느낌을 표현하였다.

볼프는 성악선율, 반주부, 화성, 조성, 리듬과 같은 모든 음악적 수단을 통하여 시의 느낌을 적절히 표현하므로 시와 음악의 융합을 실천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 I. 서론

-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 II. 이론적 배경

- 1. 후고볼프의 생애 ----- 3
- 2. 후고볼프 가곡의 음악적 특징 ----- 5
- 3. 시인 뢰리케와 뢰리케 가곡집 ----- 9

### III. 악곡분석

- 1. Das verlassene Mägdelein ----- 12
- 2. In der Frühe ----- 18
- 3. Gebet ----- 24
- 4. Lebe wohl ----- 29

### IV. 결론 ----- 34

### 참고문헌

### ABSTRACT

# 표 목 차

[표1]	
Eric Sams가 분류한 가사와 조성과의 관계 -----	7
[표2]	
Das verlassene Mägdelein의 형식 -----	14
[표3]	
In der Frühe의 형식 -----	19
[표4]	
Gebet의 형식 -----	25
[표5]	
Lebe wohl의 형식 -----	30

# I. 서론

## 1. 연구의 의의와 목적

후고 볼프(Hugo Wolf, 1860-1903)는 R. Wagner의 양식을 가곡에 적용시켜 F. Schubert(1797-1828), R. Schumann(1810-1856) 그리고 J. Brahms(1833-1897)에 이어지는 독일가곡에 시와 음악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이상을 부여 함으로써 독일 낭만주의 가곡을 최고의 수준까지 올려 놓았다.<sup>1)</sup>

그는 오페라, 현악4중주, 합창곡, 관현악곡등 다른 장르의 작품들도 남겼으나 1887년부터 1897년까지 10년동안 집중적으로 작곡된 250여곡의 가곡으로 그의 예술정신이 대표된다.

그의 가곡은 평생 추종했던 바그너의 영향으로 시문학이 매우 중요시되었고, 존경하던 슈만의 음악에서 피아노 역할의 강조를 통해 노래와 반주를 완전하게 결합시키는 방법을 배웠다.

그리하여 그의 가곡은 시와 음악의 융합이라는 낭만주의 독일 가곡의 이상을 실현하였고 반주부의 역할 강조로 작품의 극적인 표현을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 내었다.

그는 한 시인의 시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작곡하였다. 5개의 가곡 모음집의 구성과 표제에서 그는 시인의 이름을 작곡가의 이름보다 앞에 기입하였는데, 이로써 리트에서 가사와 음악이 평등함을 보여주었다.

대학원 리사이틀을 통해 접하게 된 볼프가곡은 정확한 연주를 위해서 많은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였다. 볼프의 가곡은 다른 어떤 가곡들 보다는 지적이며 간결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고 연주자로서 더욱 심화된 연구의 필요성을 갖게 하였다.

본 논문은 볼프가 불안정했던 초기에서 벗어나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작곡한 「Mörke Liederbuch」중 4곡을 택하여 연구 분석함으로써 곡의 정확한 이해와 폭 넓은 연주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1) 김진균, 서양음악사, 해림출판사, 1982, p.327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논문에서는 볼프의 생애와 그의 가곡의 전반적인 특성과 시인 뢰리케와 「Mörike Liederbuch」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고 Mörike 시에 의한 가곡 중 'Das verlassene Mägdelein(버림받은 소녀)', 'In der Frühe(이른 아침에)', 'Gebet(기도)', 'Lebe wohl(안녕히)'을 통하여 가사, 형식, 선율, 화성, 시와 악곡과의 관계 및 리듬등을 연구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후고 볼프의 생애

독일 리트의 위대한 작곡가 후고 볼프는 1860년 오스트리아의 빈디슈개르츠(Windischgärz, 현 유고령)지방의 가난한 가죽세공 기술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비록 가난하고 음악적인 분위기의 가정환경은 아니었지만 볼프아버지는 음악애호가로 볼프에게 피아노, 바이올린 등 여러 가지 악기를 직접 가르쳤다.

그는 1875년 비인(Wien)음악원 입학으로 정식 음악교육을 받기 시작하였고, 가곡 작곡에 크게 심취하였다. 이 때 그는 「탄호이저(Tannhäuser)」와 「로엔그린(Lohengrin)」을 지휘하기 위해 비인에 온 바그너의 연주를 보고 그 후로 그는 바그너의 음악에 심취하게 되었고, 그의 음악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으며 볼프의 음악은 평생동안 바그너에게 기울어지게 되었다.<sup>2)</sup> 1877년 비인음악원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매우 어려운 생활을 했으나, 자료 수집과 문학적 탐구 등 독자적인 음악공부를 하였다.

1884년 비인 살롱블라테스(Wiener Salonblattes)<sup>3)</sup>의 비평가로 활동하며 예리한 비평으로 음악계에 관심과 사회적 명성을 얻었다. 그는 글루크, 하이든, 모짜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슈만의 작품에는 적극적인 지지와 찬사를 보냈지만 브람스의 작품은 극렬한 혹평을 하였다.<sup>4)</sup>

1888년부터 1891년까지 3년동안 그는 집중적으로 가곡작곡에 열중하였다. 특히 시인별 가곡집 작곡에 열중하였다. 1887년 친구 프리드리히에크슈타인(Friedrich Eckstein)의 도움으로 두 권의 가곡집을 출판하였다. 이 가곡들 중 두 곡, '쥐에 관한 작은 격언(Mausfallensprüchelein)'과 '평화를, 평화를 위하여!(Zur Ruh, Zur Ruh!)'는 볼프 가곡작품들의 예언자격인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sup>5)</sup> 이듬해 볼프는 독일의 거장 시인 에두아르트 뢰리케(Eduard

2) Stanley Sadie, "Hugo Wolf",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p.475

3) 정기간행물 - 비인 주간잡지, 비인 살롱신문

4) Lorraine Gorrell, The Nineteenth - Century German Leid, 음악춘추사, 1998, p.339

Mörike:1804-1875)의 시에 기초를 둔 ‘고수(Der Tambour)’를 시작으로 열정적 작품활동을 하여 3개월 동안 피리케의 시에 의한 53곡의 리트(Lied)를 완성시켰다.

이어서 요제프 폰 아이헨도르프(Joseph von Eichendorff:1788-1857)의 시에 의한 10곡의 가곡을 작곡하였으며, 이 가곡집은 1899년 전 20곡으로 완성되었다.

1889년 요한 볼프강 폰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1749-1832)의 시에 의한 작품 51곡을 작곡하였고, 이때부터 가곡 애호가들의 관심이 볼프에게 집중되어 같은 괴테의 시에 곡을 붙인 슈베르트와 슈만의 작품들과 비교되었다. 이후 엠마누엘 가이벨(Emanuel Geibel:1815-1884)과 파울 하이제(Paul Heyse:1830-1914)의 독일어 번역에 의한 「스페인 가곡집(Spanisches Liederbuch,1891,전44곡)」이 쓰여 졌다. 이 가곡집은14세기부터 17세기의 스페인의 명시에 곡을 붙인 것으로 10곡의 종교적 내용의 곡과 34곡의 세속가곡으로 되어있다.

이 후 1891년까지 200여곡에 달하는 왕성한 작품을 작곡하였다. 하이제 번역에 의한 「이탈리아 가곡집(Italienisches Liederbuch,1892,전22곡)」을 작곡한 뒤 갑자기 영감의 고갈을 느끼며 작곡활동을 멈추었다. 이후 오페라 「원님(Der Korregidor)」을 작곡하였으나 초연에 실패하며 점점 신경쇠약으로 4년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903년 43세의 나이로 그의 마지막 생을 마감하였다.

---

5) Lorraine Gorrell, Ibid. p.334

## 2. 후고 볼프 가곡의 음악적 특징

볼프는 다른 음악 장르 보다도 250여곡에 달하는 가곡에서 두드러진 두각을 나타낸 작곡가로 초기작품들은 슈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슈만이 좋아했던 하이네의 시를 가사로 택한 점이나 시작부분은 느리고 여린 움직임에서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는 형태, 낭송적 성악부, 독립적 반주부, 반주부에서 모티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기법, 그리고 성악성부가 끝난 후에도 피아노 반주가 지속되면서 곡의 정서를 유지 시켜주는 형태등이 슈만의 가곡특성과 비슷하다.<sup>6)</sup>

볼프는 가곡의 모든 가능성을 집약하여 가사와 음악의 종합체를 이루어냈다. 본질적으로 그는 가곡을 작곡하는데 문학적으로 접근해 갔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18세기 글룩이 주장한 ‘음악은 시에 종속된다.’는 개념으로 되돌아 간듯하다.<sup>7)</sup> 그의 가곡에서 모든 음악적 요소들은 시의 표현을 위해 사용된 것이다.

그는 정제된 문학적 감각과 어휘의 뉘앙스를 음악적으로 조화시키는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다. 볼프는 자신의 첫 번째 작품집 앞쪽에 시의 제목을 배치할 정도로 시문학을 중시했다. 그는 심오한 종교적 기도에서부터 익살스러운 유머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들과 이에 따른 다양한 시적 분위기를 묘사함에 있어 가장 성공적인 가곡 작곡가였으며, 동시에 대단한 유머감각의 소유자였다. 볼프의 음악은 시가 문학에 너무나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가곡을 정확히 연주하기 위해선 시에 대한 일정수준 이상의 이해력이 요구된다. 볼프는 음악가로서뿐 아니라 시인으로 인정될 정도로 가사의 처리에 거의 오류가 나타나지 않았다.<sup>8)</sup>

다음에서는 볼프의 가곡에 나타난 특징들을 성악성부, 피아노 부분, 화성,

---

6) 김미애, 독일가곡의 이해. 삼호출판사 p.163

7) Stanley Sadie. Ibid, p.843

8) Ernest Newman, Hugo Wolf, New York, Dover Published Inc. 1962, p.155

리듬에서 살펴보려한다.

먼저 성악성부를 살펴보면 볼프는 예술가곡 작곡에 있어서 시어의 음악적 표현에 큰 비중을 두었다. '가사와 음악의 통합'이란 바그너음악의 철학에 따라 볼프의 가곡은 바그너의 음악극에 나타나는 낭창법(Declamation)<sup>9)</sup>과 슈베르트의 레시타티브적 선율의 영향을 받았다. 보통 낭만시대의 예술가곡들은 노래를 말하듯이 하여 정확한 가사전달을 추구하였는데 볼프의 가곡에 사용된 낭창법이 낭만시대의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sup>10)</sup>

또한 반음계의 사용은 볼프가 가진 음악적 어휘의 기본요소로, 선율부에 장식적인 역할과 기능적 화음 구성에도 반음계를 사용하였다.<sup>11)</sup>

피아노 반주부분을 살펴보면 19세기 초 피아노의 발달과 보급은 예술가곡의 대두와 발전에 큰 계기가 된다. 볼프는 너무 문학적으로 흐르기 쉬운 음악을 피아노 부분의 확대로 성악성부에서 다하지 못한 시의 표현을 피아노 파트에서 그려내려 하였다. 그의 가곡은 슈만에게서 볼 수 있었던 “성악과 피아노의 결합”이란 경향을 이어갔다. 피아노 반주부는 성악성부를 따라가기보다는 성악성부와 대위법적 관계를 가지고 전개된다든지, 서로 전혀 관계없이 나아간다는 전조와 변화화음 등의 사용으로 가사에 내포되어 있는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그의 피아노 반주부는 때에 따라서 간단한 4성부로 되어 있는 곡도 있으나, 흔히 바그너의 악극과 같이 감정의 기폭이 매우 큰 드라마를 연출하기도 한다.

볼프의 곡에 있어서 피아노 파트가 성악성부의 화성적 배경만을 위해 쓰여진 경우는 매우 드물며 때론 성악성부와는 전혀 다른 요소를 가지고 독자적인 경향을 강하게 띄고 있는 간주나 후주들도 빈번히 볼 수 있다. 전주와 간

---

9) 음악에서 선율과 악절의 끊김을 시의 운율에 따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억양과 뜻에 따라 정하는 것을 말함. 반복 어구라도 다른 뉘앙스와 표현상의 느낌이 다를 때는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지기도 함. 즉 가사와 억양에 충실하고 무엇보다 가사의 뜻을 나타내도록 주의되고 있는 선율의 움직임 중시한다.

10) 에블랑 루테르, 프랑스 가곡과 독일가곡, 삼호출판사, p.104

11) Lorraine Gorrell, Ibid. 음악춘추사, p.346

주, 후주의 비중을 많이 두어 전주에선 곡 전체의 동기와 화음들을 예시하기도 하며, 간주는 조성과 가사, 화음 등 대조되는 부분을 연결하여 곡이 무리 없이 진행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후주는 종지로의 곡 분위기와 시의 내용에 어울리도록 마무리함으로써 곡의 표현을 한층 더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볼프는 기쁨과 슬픔을 장조와 단조로 표현하거나, 특정한 조성과 가사의 의미를 연관지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아침이슬을 밟으며 산책하다 (Wand'lich dem Morgentau,1890)’, ‘축복받은 초록빛, (Gesegnet sei das Grün,1896)’과 같이 봄과 관련된 노래에는 A장조를 ‘버림받은 소녀(Das verlassene Mägdelein,1888)’, ‘미뇽,(Mignon,1888)’과 같은 슬픔과 절망을 표현한 노래들은 a단조를 사용하였다.

[표 1] Eric Sams가 분류한 가사와 조성과의 관계

조성	표현내용	가곡
C장조	단순함	Gesellenlied
D장조	만족감	Fussreise, Ganymed
d단조	분노와불만족	Prometheus das Köhlerweib ist trunken
A장조	봄	Frühling übers Jahr Gesegnet sei das Grün
a단조	슬픔과 절망	Das verlassene Mägdelein, Mignon II

볼프가곡의 화성은 고전적인 전통에 바그너의 영향이 결합되었다. 볼프는 바그너의 작품 「트리스탄과 이졸데」에 나타나는 반음계적어법에 영향을 받아 시적 의미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을 위한 도구로 반음계를 사용하였다.

예술가곡에서 리듬은 시를 음악으로 나타내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리듬은 시에도 존재하고 있어 시적 표현과 음악적 표현을 전달하는 공통적 수

단이 된다.

볼프는 대부분의 그의 가곡에서 규칙적으로 2마디, 혹은 4마디 악절로 구분된 2박자나 4박자를 사용하여 단조로운 규칙성으로 독일어의 운율을 수용하였고, 단조롭고 지루한 느낌을 없애기 위해 축소와 확대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적 느낌을 적절히 표현하였다. 그리고 가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그림을 그리듯 묘사하거나 특정한 감정에 있어서 일정한 리듬형을 지정하여 사용하므로 가사의 내용과 긴밀하게 밀착된 시적 표현의 강도를 한층 더 높여주었고, 당김음과 쉼표의 사용으로 시의 리듬효과를 다양성 있게 구사하였다.

그는 짧은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많은 가곡을 작곡하였지만 그 가곡들 모두 음악적으로 훌륭한 완성작으로 뛰어난 표현과 각 작품들이 갖는 특이한 성격들과 다양성, 풍부함에 그 특징이 있다. 볼프의 가곡은 내용과 긴밀하게 밀접된 낭창법과 반음계적 어법을 활용한 섬세한 선율과 감정의 뉘앙스를 표현하는 피아노와의 협동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 3. 시인 뢰리케와 뢰리케가곡집

뢰리케(Eduard Mörke,1804-1875)는 하이네와 같은 시대에 살면서 그와는 대조적인 시를 썼으며 고독하게 일생을 마친 시인이다.<sup>12)</sup> 독일의 슈봐벤(Schwaben)지방의 뛰어난 서정성 짙은 시를 남긴 독일 낭만파 시인으로 그는 한 때 목사가 되었다가 후에는 슈투트가르트(Stuttgart)의 왕립여학교에서 독일 문학을 가르쳤다. 목가적이며 향토성 짙은 소박한 서정시를 썼으며, 특히 전원시(Idylle)에 뛰어났다. 그의 시는 단정한 형식면으로 볼 때는 고전주의에 가깝고, 자연의 신비스러운 느낌에 있어서는 낭만주의, 또 대상의 정교하고 세심한 묘사에 있어서는 사실주의와 상통한다.<sup>13)</sup>

또한 뢰리케가 살았던 시대는 프랑스 혁명 이후 시민 혁명의 거센 기운이 한창 독일을 휩쓸기 시작할 때였다. 많은 문학 지망생들이 정치적 열기에 들떠 있었고, 뢰리케 역시 앞으로의 역사가 보다 열려진 시민사회가 되어야 한다는데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치적인 면에서 실제적 행동은 절제하였고 문학적으로는 자신의 의식을 구현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뢰리케는 문학사에서 ‘낭만성과 현실의식’의 시인으로 간주되어진다. 그의 시는 한 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기묘한 빛깔을 지니고 있는데 자연의 신비를 노래하는 유연한 가락이 넘쳐흐르는가 하면 동시대의 즐거움과 비애를 노래하는 현실감으로 충만하기도 하다. 이와 같이 고전적인 요소와 낭만주의적 요소, 그리고 민속적인 요소와 리얼리즘 요소가 두루 편재해 있다.<sup>14)</sup> 또한 뢰리케의 시를 ‘의식시’<sup>15)</sup> 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뢰리케 시의 근본 모티브는 종교적인 것을 바탕으로 한 성스러움이다. 그러나 그의 성스러움은 성스럽게 우상적으로 강조되는 차원을 벗어나 아름다움으로 바뀐다.<sup>16)</sup>

12) 박용구, 세계의 음악, 창조사, P.125

13) 박찬기, 독문학사, 장문사, P.251-252

14) Carol Kimball, Song - A Guide to Style and Literature, Pst.Inc. seattle, p.117

15) 이 때의 의식시란 단순히 체험적이 아닌 ‘생각을 깊이 담은 시’라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사랑이나 자연을 감정이나 동경이상으로 관찰한다.

그는 생존시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고 그 후 1884년 볼프가 그의 시에 곡을 붙여 출판한 뢰리케 가곡집에 의해 그의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했다. 볼프는 슈만의 영향으로 뢰리케의 시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10년 가까이 애독하던 뢰리케의 시들로 1888년 초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곡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불과 10개월 사이에 53곡의 뢰리케 가곡집을 완성할 정도로 작곡에 몰두하였다. 그는 자신도 그 음악에 만족하며 슈베르트나 슈만 이후 이러한 작품은 없을 것이라고 친구들에게 편지하기도 하였다.

3월20일-오늘...나는 나의 걸작을 창조해냈다. 〈한 소녀의 첫사랑 노래, Erstes Liebeslied eines Mädchens〉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작품들보다 월등히 나은 작품이다.

3월21일-나는 〈한 소녀의 첫사랑 노래, Erstes Liebeslied eines Mädchens〉가 나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의견을 취소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아침에 쓴 작품 〈도보여행, Fussreise〉 .....이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다.<sup>17)</sup>

뢰리케 가곡집에는 볼프의 가장 잘 알려진 리트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소재면에서도 다양하여 꽃, 새벽, 황혼, 밤 등의 자연에서부터 요정, 귀신 등의 초자연적인 대상에까지 이르며 이들 모두가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등장한다. 작품의 성격도 서정적, 목가적, 설화적, 우화적으로 매우 다양하다. 종교적인 곡(Auf ein Altes Bild, Schlafendes Jesuskind, Gebet등), 자연을 묘사한 곡들(Um Mitternacht, Auf eine Christblume, Lied vom Wirde, Die Geister am Mummelsee등), 힘과 온정을 느끼게 하는 곡(Der Feuerreiter), 유머스러운 곡(Der Tambour, Auftrag)등 다양성이 다른 어느

---

16) 김주연, 독일 시인론, 열화당, P.135-151

17) Frank Walker, Hugo Wolf, London, J.M.Dent&Sons, 1951, p.203

가곡집보다 더 광범위하다. 또한 피리케 가곡집은 볼프의 문학적 우위가 다른 가곡집에 비하여 더 많이 나타난다.

### Ⅲ. 악곡분석

#### 1. Das verlassene Mägdelein. (버림받은 소녀)

##### 1) 시 번역

Früh, wann die Hähne krähn,  
eh die Sternlein schwinden  
muss ich am Herde stehn  
muss Feuer zünden

닭이 우는 새벽에  
새벽이 지기 전  
나는 부뚜막에 앉아서  
불을 지피노라.

Schön ist der Flammen Schein  
es springen die Funken,  
ich schaue so darein  
In Leid versunken

오 아름답게  
타오르는 불꽃  
나는 녀를 잃고 보며  
슬픔에 잠기네

Plötzlich, da kommt es mir,  
treuloser Knabe,  
dass ich die Nacht von dir  
geträumet habe

갑자기 떠오르는  
사랑을 저버린 사람아  
나는 밤새도록  
그의 꿈을 꾸었다.

Träne auf Träne dann,  
Stürzt hernieder,  
so kommt der Tag heran  
o ging er wieder!

자꾸만 눈물이  
쏟아져 내린다.  
이제 날이 밝아온다.  
오, 그렇게 가버린 사람아!

이곡은 1888년 3월 24일 작곡된 곡으로 피리케 가곡집의 7번째 곡이다.

볼프가 이곡을 작곡할 당시 이 시는 이미 슈만에 의해 곡이 붙여져 널리 알려져 있었다. 슈만을 존경하며 그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던 볼프는 이 시에 곡을 붙이는 것을 꺼렸으나 그는 이 시의 시상의 힘에 강하게 이끌리어 작곡을 하게 되었다.

이 시는 피리케가 민요적 모티브를 사용하여 쓴 민요계열의 시로 사랑과 실연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이 시에는 두 가지 정서가 대조되어 나타난다 : 불꽃과 꿈으로 나타나는 따뜻함, 밝음. 그리고 차가운 불꽃과 실연의 현실로 나타나는 어두움이다. 1연에서는 새벽에 차가운 부엌에 나가 불을 지피는 고독하고 현실에 순응하는 소녀가 그려진다. 2연에서는 불이 지펴짐에 따라 따뜻함이 시에 나타나고 3연은 불꽃을 보며 갑자기 변심한 애인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고 지난밤에 그를 꿈 속에서 본 사실을 기억한다.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을 지피 따뜻해진 주위와 더불어 고조된다. 4연에서는 다시 실연의 현실로 돌아와 “그는 가버렸다”를 되뇌인다. 각 4행의 4연으로 구성된 이 시는 제 1연은 a-b-a-b, 제 2연은 c-d-c-d, 제3연은 e-f-e-f, 제4연은 g-h-g-h로 규칙적 운율을 가지고 있다.

## 2) 형식

이 곡은 A B C A`의 형식으로 볼프의 조성적 언어에서 여성의 절망과 슬픔을 표현하는 a minor의 곡이다.

2/4박자의 느린곡으로 전체적으로 *pp*의 조용한 악상으로 버림받은 소녀의 애절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으며, 27~30마디의 두 번 반복되어 나오는 *cresc.* 와 *decresc.* 로 절정을 나타낸다.

[표2] Das verlassene Mägdelein의 형식

형식		A			B			C			A'		
구분	전주	a	a'	간주	c	a	간주	d	a''	간주	a	a'	후주
마디	1~4	5~8	9~12	13~14	15~18	19~22	23~26	27~30	31~34	35~37	38~41	42~46	47~52
조성	a minor												
박자	2/4												
빠르기	Langsam(느리게)												

3) 악곡분석

이곡은 버림받은 소녀의 애절함을 표현한 곡으로 전주에 나타난  $\downarrow \uparrow \uparrow | \downarrow \uparrow \uparrow$  을 기본리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곡을 통해 일관되게 나타난다.

<악보1> 1~12마디

Langsam (Slowly)

리듬첨가

일관된 반주리듬

Früh, wann die Häh-ne krähn,  
a minor 음계 순차적으로 나옴

완전5도하강

Bass가장 높은음: Bass의 음역이 넓다

eh die Stern-lein schwin-den, muß ich am Her-de stehn, muß Feu-er zün-den.

완전5도하강

완전5도하강

a minor 반증지

1,5음사용

1,5음사용

성악선율이 반주의 리듬에 ♩ ♪ 리듬이 첨가되어 발전되면서 12마디에선 a minor의 반종지가 된다. 그러나 13~18마디에서는 a minor의 i로 해결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A Major가 된다. 여기서 I 과 iii의 지속적인 교체로 나타나는 장조의 느낌과 17마디의 반박자 쉬고 나오는 8분음표와 3연음부의 사용이 아름답게 '타오르는 불꽃(springen die Funken)'을 표현하고 있다.

<악보2> 13~26마디

13

일시적 A Major

Schön ist der FlammenSchein, es springendie Fun-ken; ichschaue  
'타오르는 불꽃'표현

pp I iii I iii I iii ppp

Bass가장 낮은 음 장음정의 9도 도약 장3도

23

so dar-ein, inLeid ver-sun-ken. Gb Major의 전조감보임

중3화음 리듬변화 중3화음

중음정의 9도 도약 중3화음

반주의 리듬이 변화없이 계속되다가 23마디에선 Gb Major의 전조감을 보이면서 ♩ ♪ | ♩ ♪ | 로 리듬의 변화를 보이고 29와 31마디의 성악선율과 33마디의 반주부에 나타난 당김음은 전체적으로 단조롭게 구성된 리듬에

효과적으로 악센트의 변화를 주었다.

선율의 특징은 성악선율이 5~12마디에서 계속적으로 완전5도로 하강하며 a minor의 음계가 순차적으로 나온다. 24와 26마디에서 증3화음을 사용하였는데, 증5도는 '열정'을 나타내는 음정으로 갑자기 떠오르는 애인에 대한 생각으로 넘어가기전, 그 감정의 고조를 예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악보3> 27~37마디

*etwas lebhafter (più animato)*      당김음사용: 단조로운 리듬에 효과적인 악센트 줄

Plötz-lich, da kommt es mir, treu-lo-ser Kna-be, daß ich die

33

Nacht von dir ge-träu.-met ha-be.

반주부의 화성을 살펴보면 3도음정이 빠진 1도와 5도 음정을 사용하여 빈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처럼 3도 음정이 빠진 화성을 사용하여 소녀의 공허하고 버림받음에 대한 쓸쓸함을 표현하고 있다.(9, 12, 42, 48~52마디)

<악보4> 38~52마디

38

Trä - ne auf Trä - ne dann stür - zet her - nie - der; so kommt der Tag her - an\_

*pp*

44

단2도(불완전중지)

o ging er wie - der!

(Julia von Bose)

해결

1,5도음정사용  
(3도없음)

Bass가 a에서 두 옥타브 아래의 a에 이르는 넓은 음역을 사용하고 있으며 (악보1의 2마디, 악보2의 13마디 참조) 또한 13~18마디의 Bass에서 장음정의 9도 도약은 아름답게 타오르는 불꽃을, 19~22마디의 Bass에서 증음정의 9도도약은 실연의 슬픔에 빠진 소녀의 심정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악보2 참조) 20, 22, 24, 26, 28, 30, 31, 32, 33, 34마디에선 열정적이었던 옛 사랑에 대한 기억을 연속적인 증3화음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악보2, 악보3 참조)

46마디에서 성악선율이 단2도 아래로 내려오는 불완전 중지를 하지만 피아노 반주부에서 화성적으로 해결하며 *ppp*로 긴장감 있게 끝을 맺는다.

## 2. In der Frühe(이른 아침에)

### 1) 시번역

Kein Schlaf noch kühlt das Auge mir,  
dort gehet schon der Tag herfür  
an meinem Kammerfenster.

Es wühlet mein verstörter Sinn  
noch zwischen Zweifeln her und hin  
und schaffet Nachtgespenster.

Ängst'ge, quäle dich nicht länger,  
meine Seele!  
Freu dich! Schon sind da und dorten  
Morgenglocken wach geworden.

내 눈은 밤새 한 잠도 자지 못했는데  
이미 아침해가 내 침실 창문으로  
밝아 온다.

혼란한 온갖 근심으로  
아직도 밤의 환영들이  
여기 저기서 보인다.

더 이상근심하며 고통스러워하지 마라  
내 영혼이여!  
기뻐하라! 이미 여기저기에  
새벽종이 울려퍼진다.

이 곡은 피리케 가곡집 중 24번째 곡으로 1888년 5월 5일에 작곡되었다. 단조의 어두운 느낌을 주는 조성으로 시작하는 이 곡은 밤과 아침사이의 애매한 시간인 새벽을 그린 곡이다. 피리케는 'Das verlassene Mägdelein', 'Ein Studlein wohl vor Tag'등 이런 동트기 전의 시간적 배경을 작품에 즐겨 사용하였다. 이 시는 10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용상 처음 여섯행의 1연과 나머지 네 행으로 된 2연으로 나눌 수 있다. 1연은 밤새 잠 못 이루며 고문하는 듯한 피로움의 상태와 뚜렷하지 않고 불명료한 상태로 남아있는 주위를 그리고 있고 2연은 "더 이상 근심하며 고통스러워하지 마라"로 시작하는 가사처럼 새벽종소리와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희망적인 부분으로 표현하고 있다.

## 2) 형식

이 곡은 A와 B로 구성된 22마디의 짧은 곡으로 각 1마디로 된 두개의 간주를 갖는다.

A부분은 매우 음절적 양식으로 쓰인 반면 B부분은 음절적이나 보다 음의 길이가 길어져 자유롭게 흐르는 리듬이 사용되었다.

전체적인 느낌은 A부분이 서술적이며 레치타티브적인 분위기를 갖고, 이에 비해 B부분은 다소 정서적이며 서정적이다.

4/4박자인 이 곡에서 볼프는 매우 지속적이면서 무겁게 노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조성의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B부분의 3도씩 계속적인 조바꿈과 곡의 시작과 끝나는 조가 d minor에서 D Major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특징적이다.

[표3] In der Frühe의 형식

형식	A				B		
구분	a	간주	a'	간주	b	b'	b''
마디	1~4	5	6~9	10	11~13	14~17	18~22
조성	d minor→E Major				E Major→ G→B b		D
박자	4/4						
빠르기	sehr getragen und schwer (매우 지속적으로, 무겁게)						

## 3) 악곡분석

이곡의 시작은 어둡고 근심스러운 색조인 d minor의 조성으로 조성적 언어에 따르면 d minor는 불만족과 분노를 암시한다.

<악보5> 1~10마디

A 단음질(8분음표중심으로), 고통스럽고 불안정한 상태표현  
반음계진행 많이 나타남

Kein Schlaf noch kühlt das Au - ge mir,

일관된 반주리듬

*pp* 대립 *p*

d minor

dort ge - het schon der Tag her - für an mei - nem Kam - mer - fen - ster.

*pp*

감5도하행

5 Es wüh - let mein ver - stör - ter Sinn noch zwi - schen

*pp*

*pp* *p* *p*

완전 5도하행 레시타티브적인 부분

Zwei - feln her und hin und schaf - fet Nacht - ge - spen - ster.

*pp* *p* *p* *pp*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부분(1~10마디)은 서술적이며 레치타티브적인데 이것은 바그너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프는 이런 선율을 시의 운율과 일치시켜 레치타티브와 아리아의 중간형태인 아리오조의 선율형으로 만들었다. 또한 이 부분은 볼프가곡의 두드러진 특징인 반음계 진행이 많이 나타난다. 1마디에서 성악성부의 선율이 상심하여 잠 못이루는 고통스럽고 불안정한 상태를 8분음표의 잘게 나뉜 단음절들로 표현하고 있으며 4마디의 "Kammerfenster"에서 감5도의 하행과, 9마디의 "Nachtgespenster"에서의 완전 5도 하행은 이야기하듯 중얼거리는 듯한 느낌으로 낭창법을 사용하였다. (악보5참조)

<악보6> 11~22마디

**B11** 박자의 길이 길어짐, 음음계적:희망적인 앞날에 대한 안도표현

Äng - st'ge, quä - le dich nicht län - ger, mei - ne See - lei

A부분의 당김음 모티브 계속나타남

E Major | 지속적인 3도 조바꿈:밝아오는 빛 상징

Freu dich! Schon sind da und dor - ten

감7도 | 불확실성 암시

G Major | B b Major

Mor - gen - glo - cken wach - ge -

D Major



감7도를 이루는데 이것은 마치 마음속에 평안이 실제로 올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암시하는 듯 하다.(악보6 참조)

마지막 부분은 조용하고 상쾌한 이른 아침을 연상케 하는 멜로디로 *pppp*의 악상으로 조용히 끝을 맺는다.

### 3. Gebet(기도)

#### 1) 시번역

Herr! schicke was du willst,  
ein Liebes oder Leides;  
ich bin vergnügt, dass beides  
aus deinen Händen quillt.

주여! 당신 뜻대로 주시옵소서  
사랑이든 고통이든  
나는 만족합니다. 이 둘 모두  
당신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Wollest mit Freuden  
und wollest mit Leiden  
mich nicht überschütten!  
Doch in der Mitten,  
liegt holdes Bescheiden.

원하오니, 기쁨이나  
슬픔이나  
내게 넘치게 붓지 마소서!  
중용 속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이 곡은 피리케 가곡집 중 28번째 곡으로 1888년 3월 13일에 작곡되었다. 피리케는 한 때 성직자의 생활을 했었기에 깊은 신앙심을 표현한 시들이 많은데 ‘Gebet’ 역시 ‘Auf ein Altes Bild’나 ‘Schlafendes Jesuskind’와 같이 종교적 감정을 담은 곡으로 피아노 반주부가 코랄(Choral)풍으로 장중한 느낌을 준다.

4행과 5행으로 구성된 2연의 시로 제 1연은 사랑과 고통을 초월하는 신앙의 간구로 고통마저도 만족함으로 감수하며 전적으로 신을 인정하겠다는 고백이며, 2연은 기쁨과 슬픔을 초월하는 감정의 간구로 감정의 절제로 만족을 누리겠다는 깊은 신앙인의 고백을 표현한 시이다.

이 시는 a-b-b-a와 c-c-c-c-c의 규칙적인 운율을 가지고 있다.

2) 형식

A B C의 세도막 형식으로, 비교적 긴 8마디의 전주(1~8마디)와 6마디의 후주(29~34마디)를 갖는다. 4/4박자의 E Major곡으로 각 음들을 Sostenuato하고 전체적으로 *p*와 *pp*의 악상이지만 *cresc.*와 *decresc.*가 많이 사용되었다.

[표4] Gebet의 형식

형식		A		B	C	
구분	전주	a	b	c	d	후주
마디	1~8	9~12	13~16	17~22	23~28	29~34
조성	E major					
박자	4/4					
빠르기	Getragen(Sostenuto)					

3) 악곡분석

이곡의 1~8마디 전주는 코랄풍<sup>18)</sup>으로 종교적 감정을 표현하며 내성에서 진행되는 1마디의 B-B#, 2마디의 E-E#등 계속되는 반음계적 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전주에 나타난 반음계적 진행은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반음계의 특성을 통하여 기도에 앞선 영혼의 고뇌를 표현하며, 반음계적 진행의 완전화음으로 해결은 기도를 통한 마음의 평안을 표현한다. (9마디)

5~9마디에서 Bass 선율이 B#-B-A#-G#-G-F#으로 반음계적으로 하행 순차 진행하며 이때 상성부는 G#-A#-B-C#-D#-E로 상행순차 진행 하여

18) 독일 루터교회에서 회중이 부르는 찬송가

Bass와 반 진행을 이루고 있다. 악상도 *ff*까지 *cresc.*하여 감정을 폭을 넓히다가 8마디에서 급격한 *decresc.*가 이루어져 *pp*로 성악성부가 시작하며 4도의 좁은 음역안에서 경건한 분위기로 신앙심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악보7> 1~17마디

**A** **5**

Choral풍

*p* *mf*

**9**

성악선올상행 Herr! schi - cke  
완전화음으로 반음계적 진행해결

Bass하행: Bass와 성악선올 반진행 *p* *pp*

반음계진행: 기도에 앞선 영혼의 고뇌 표현

**13**

was du willst, ein Lie - bes o - der Lei - des; ich bin ver -  
성악선올이 좁은 음역안에서 움직임

**B** **17**

gnügt, daß bei - - des aus dei - nen Hän - den quillt. Wol - lest mit

*pp*

B부분에서는 음정의 확대와 리듬의 변화로 가사의 느낌을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 17마디에서 20마디까지 Bass선율은 B-A-G#-F#-E#-E로 하행 순차적 반음계 진행을 하고 반면 성악선율은 전체적으로 상행하며 음정확대가 이루어지고, *cresc.*와 *decresc.*를 이용한 악상의 변화로 장엄함을 표현하였다.

<악보8> 18~34마디

상행진행

Freu - den und wol - lest mit Lei - den mich nicht ü - ber -

Bass와 상성부 반진행

[C] 3도위 동형진행, 당김음 사용으로 클라이막스 이룸

schüt-ten! Doch in der Mit-ten, doch in der

가장 중요한 가사를 가장 높은 음에 둠

Mit-ten liegt - hol - des Be - schei - den.

7도음정으로 성악성부 마침

<악보8>계속



C부분에서는 23마디부터 28마디까지 당김음으로 되어 있으며 23~24마디와 25~26마디는 선율과 리듬이 3도위의 동형진행(sequence)으로 이 곡의 클라이막스를 이루며 26마디에선 가장 중요한 가사인 "Mitten(중용)" 이 이 곡의 가장 높은 음인 E로 되어 있어 가사에 충실한 볼프의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28마디의 성악선율이 7도 음정인 D#으로 끝내어 기도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어서 피아노 반주부에서 화성적 해결을 이끌어 주고 29~34마디의 후주에서는 *ppp*로 순차하행 진행하며, 31마디부터는 안정감 있게 오른손, 왼손이 같은 리듬과 화성의 IV-I의 아멘종지로 마무리하여 기도하는 듯한 경건함을 표현하였다.

#### 4. Lebe wohl(안녕히)

##### 1) 시번역

“Lebe wohl!” Du fühlst nicht,            “안녕히!” 너는 느낄 수 없을 것이다.  
was es heisst, dies Wort der Schmerzen;이 괴로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mit getrostem Angesicht                    고통이 없는 얼굴로  
sagtest du's und leichtem Herzen.        너무 가볍게 말해 버린다.

Lebe wohl! Ach tausendmal                안녕히... 아아! 천번이나  
hab ich mir es vorgesprochen,            내 자신에게 말해봐도  
und in nimmersatter Qual                 표현할 수 없는 고통에  
mir das Herz damit gebrochen!          내 마음은 찢어질 것만 같다.

이 곡은 피리케의 약혼녀 “루이제 라우”와의 연애택임을 바탕으로 쓴 시로 볼프에 의해 1888년 3월 31일에 작곡된 36번째 곡이다. 각 4행으로 구성된 2연으로 1연에서는 무심하게 이별을 고하는 애인에 대한 고통과 배신감을 표현했고, 2연에서는 그 이별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며 낙심하는 작가의 심정을 표현하였다.

a-b-a-b, c-d-c-d의 규칙적인 운율을 가지고 있다.

##### 2) 형식

4/4박자의 아주 느린곡으로 거의 자유형식에 가깝지만 시의 각 연을 고려하여 나누면 A B로 나눌 수 있다. 계속되는 반음계 진행으로 시작과 마침의 조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G b Major로 시작하여 B부분에서 반음계 진행을 거치면서 D b Major의 조성으로 끝을 맺는다.

악상을 살펴보면 다른 가곡들에 비해 *f*의 사용이 빈번하다. *pp*에서 급하게

f로 *cresc.*되었다가 바로 *decresc.*되어 *p*로 돌아오는 부분을 통하여 이별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배신감과 고통의 감정을 매우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표5] Lebe wohl의 형식

형식	A	B
마디	1~8	9~20
조성	G b Major→D b Major	
박자	4/4	
빠르기	Sehr langsam, und leidenschaftlich(아주 느리고 정열적으로)	

### 3) 악곡분석

이 곡은 곡 전체를 걸쳐 반응계적 진행이 나타난다. 바그너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반응계적 진행은 무한화성적 연주를 가능케 하였고 이곡에서도 시작과 마침의 조가 다르게 구성된 특이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긴 반응계 진행이 이루어진 후에 완전화음이 나오는데 반응계는 해결되지 않은채 계속 진행되므로 불안한 심리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주제어인 "Lebe wohl"에서 반주부에서 계속 반응하강의 모티브로 되풀이되면서 (1,9,10마디) 이별의 침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또한 성악선율이 반주를 받아 첫 반박자를 쉬고 들어오는 당김음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A부분은 피아노 선율이 먼저 제시되고  $\downarrow \uparrow \downarrow \mid \uparrow \uparrow \uparrow \downarrow \downarrow$ 의 리듬을 바탕으로 성악선율이 당김음으로 피아노 선율을 따라가는 형태로 반응계적 선율을 강조하고 있다. 반응계 진행으로 불협화음적으로 확장되는 화성

진행과 급격한 *cresc.*와 *decresc.*의 사용, 성악성부에 나타나는 음정도약등으로 극적 분위기를 충분히 살리고 있다.

<악보9> 1~7마디

**A1** | 계속적인 반음 하강 모티브 사용 | 주제어 "Lebe wohl" 표현 | 계류음

„Le - - be wohl!“ | Du füh - lest nicht, —

G b Major *pp* 경과음 | *cresc.* | 동2도

비화성음 사용으로 연속적 반음계 진행

5 | *f* | *p* | *espress.*

was es heißt, — dies Wort der Schmerzen; | mit ge -

감7화음

전타음

tro - - - stem An - ge - sicht | sag - test du's und

*mf* | *mf* | 감7도

연속적 반음계 진행



성악선율은 음역이 db'~ab"까지 넓게 걸쳐 사용되었고 경과음(1마디)이나 계류음(2마디), 전타음(6마디)의 비화성음을 사용하여 연속적인 반음계적 진행을 이루고 있다. 10마디에서는 경과음을 사용하고, 13마디에선 계류음을 사용하였다가 e4"음정에서 해결한 후 14마디의 ab"까지 연속적으로 순차진행하면서 점차 감정을 고조시키고 14마디에서 옥타브 아래로 하강하면서 고조된 고통의 감정 절제를 표현하고 있다. 15~16마디에서도 계속적으로 반음계적진행을 한 후 단3도 위에서 미해결음인채 불완전종지로 끝난다.

<악보10> 8~20마디

leich - - tem Her-zen. Le - be wohl!

경과음

감7화음

er gesteigert  
(with more intensity)

Ach tau - send - mal hab ich mir es vor - ge - spro - chen,

순차진행으로 옥타브아래로 하행  
계류음 감정고조 고조된 감정 절제표현

13

und in nir - me - sat - ter Qual mir das Herz da - mit ge -

넓은 음역사용

<악보10>계속

단3도(불완전중지)

bro - - chen!

(Julia von Bose)

시작과 마침조가 다름

pp

pp

pp

D|b Major

화성에서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음계적 진행으로 변화화음이 곡 전체에 사용되었다. 2와 14마디의 Bass외성의 증음정, 3마디와 7~8마디, 18~19마디에 나타난 감7화음사용, 계류음과 전타음을 사용한 반음계적 진행으로 곡의 분위기를 한층 긴장시켜 이별의 아픔과 고통을 음울하면서도 신비스럽게 표현하였다. 곡의 전반에 흐르는 신비한 반음계적 진행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제목(“안녕히”)의 분위기를 살리고 있다.(악보9참조)

피아노 반주부를 통해 곡전체에 반음계적 진행이 더 많이 나타나므로 피아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반주부에서 다양한 화음의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1~10마디는 분산화음적으로 왼손 코드위에 오른손이 선율을 제시해 주면서 성악선율을 이끌고 11~16마디에서는 반주부가 성악선율의 활발해진 리듬을 타고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다. 17~20마디에서는 성악성부의 불완전 중지를 해결하며 차분하게 곡을 마무리하고 있다.

#### IV. 결 론

블프는 독일 낭만가곡의 절정을 이룩한 작곡가로 그의 가곡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는 시와 음악의 융합이라는 독일 가곡 작곡의 전통을 이어받아 가곡의 모든 가능성을 집약하여 가사와 음악의 종합체를 이루었다. 그는 시문학을 매우 중요시 하여 가곡작곡을 문학적으로 접근해 갔으므로 그의 가곡은 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블프 가곡의 전반적인 특징과 그의 가곡에 나타난 시와 음악의 융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화성, 조성, 리듬, 반주부 등 여러 면을 통하여 살펴 보려 하였다. 이를 위해 「Mörke Liederbuch」 중 'Das verlassene Mägdelein', 'In der Frühe', 'Gebet', 'Lebe wohl'의 곡을 선택하여 고찰하였다.

'Das verlassene Mägdelein'은 버림받은 소녀의 사랑과 실연의 세계를 표현한 곡으로 a minor로 슬픔과 절망을 나타내는 조성적 언어를 사용하였다. 전곡을 통해 일관된 리듬을 사용하였고 3도음정이 빠진 1도와 5도로 화성을 구성하여 실연한 소녀의 심정을 빈 화성으로 표현하였다. 성악선율이 단2도로 불완전 종지를 하지만 피아노 반주부에서 화성적으로 해결하여 성악과 반주부의 결합을 보여주고 있다.

'In der Frühe'는 밤새 잠 못 이루며 고문하는 듯한 괴로움과 새벽종소리와 함께 희망을 기대하는 내용으로 괴로움의 심정을 반음계를 많이 사용한 낭창법으로 표현하였고 3도의 계속되는 전조로 점점 밝아오는 빛을 표현하였다. 또한 이곡도 조성적 언어를 사용하였으며 d minor의 조성이 불만족과 분노를 암시 하고 있다.

'Gebet'는 종교적 내용으로 피아노 반주부가 코랄(Choral)풍으로 장중한 느낌을 준다. 빈번한 반음계 사용, Bass선율과 상성부간의 반진행, *cresc.*와 *decresc.*의 악상변화로 곡을 폭넓게 확장하며 가장 중요한 가사를 가장 높은

음에 위치하게 하는 등 가사의 감정과 표현에 충실한 면을 보여 주는 곡이다. 성악 선율의 불안전 종지를 피아노 반주부에서 화성적 해결을 하며 아멘종지로 종교적 느낌을 더욱 살리고 있다.

‘Lebe wohl’은 곡 전반에 쓰인 반음계적 진행으로 이별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으며 조성이 Gb Major로 시작하여 계속 되는 반음계 진행을 거쳐 Db Major로 마친다. 다른 가곡들에 비해 *f*의 사용이 많으며 악상이 급하게 변함으로 이별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배신감과 고통의 감정을 매우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볼 때 볼프의 작품을 연주함에 있어 연주자는 반드시 시적 검토를 통하여 가곡을 분석하고 시를 묘사하기 위한 음악적인 면을 고려하여 연주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I. 국내서적

#### 1. 사전

- 세계명곡해설전집3, 태림출판사, 서울, 1989
- 음악대사전, 신진출판사, 서울, 1989
- 독일명가곡전집, 음악춘추사, 서울, 1979

#### 2. 일반서적

- 김진균, 서양음악사, 해림출판사, 서울, 1982
- 김미애, 독일가곡의 이해, 삼호출판사, 서울, 1998
- 김주연, 독일 시인론, 열화당, 1980
- 박용구, 세계의 음악, 창조사, 서울, 1969
- 박찬기, 독문학사, 장문사, 서울, 1989

#### 3. 번역서적

- 에블랑 루테르, 프랑스 가곡과 독일가곡, 삼호출판사, 서울, 1986
- 로레인 고렐, 19세기 독일가곡, 음악춘추사, 서울, 1998

### II. 외국서적

#### 1. 사전

- Donald J. Grout, A History of Western Music, W.W.Norton & Company, New York, 1973, p.169
- Stanley Sadie, "Hugo Wolf",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 2. 일반서적

- Carol Kimball, Song-A Guide to Style and Literature, Pst.Inc, Seattle,
- Ernest Newman, "Hugo Wolf", Dover Published Inc, New York, 1962
- Eric Sams, The Songs of Hugo Wolf, New York:Oxford Univ.Press 1962
- Frank Walker, Hugo Wolf, J.M.Dent&Sons, London, 1951

## III. 논문

- 김애령, E. Mörike 시에 의한 Hugo Wolf 가곡 분석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1993
- 박지영, Hugo Wolf가곡의 음악적 특성연구, 서울대학교, 1988
- 이상순, Hugo Wolf가곡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1988

## ABSTRACT

### A Study of Hugo Wolf's Mörike Liederbuch

Hwang, Ji Young

The department of music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

Hugo Wolf, the very great composer of German lied, who reached the peak of Romantic Lied succeeded to German Lied. He wrote about 250 songs after Schubert and Schumann.

As an ardent Wagnerian, he pursued the combination between the poetry and music, and approached to the music as literature. He tried to realize the ideal of Wagner's composite art in his work. Therefore poetry is very important part in his work. In addition, he made people realize texts play an important role.

He concentrated on the song composition from 1888 to 1891. It was very short term, that he focused on each poet type such as 「Mörike Liederbuch」 「Göthe Liederbuch」 「Eichendorff Liederbuch」 .

Wolf's lieder had being proven his worth after adding Eduard Mörike's poem. In this thesis, I studied that his characterized songs were how to be used among his songs, four songs, 'Das verlassene Mägdelein', 'In der Frühe'. 'Gebet'. 'Lebe wohl' were selected.

Above all, he regarded lied as a combination of poetry and music. He completed in form of poem, and stanza and line are formed formal frame of music. So rhythm and meter of poem effected much on pattern and melody.

He intended to express the poetic atmosphere with a tune. First, for example, 'a minor' was used as sadness and desperation, and 'd minor' was as angry and unsatisfaction. He expressed a brighter light as third modulation.

Futhermore, he used a harmony to express the poem atmosphere. Every music resource, the use of a frequent chromatic scale and an accompaniment that has just one motive were expressed. With this point of view, we can realize the features of Wolf's lied.

Hugo Wolf put in practice the combination between the poetry and music through every musical means such as a vocal line, an accompaniment, a harmony, a tune and a rhythm then he expressed he poem atmosphere.